

국 어

출제자: 강세진 교수님

- ‘HALF KANG 모의고사’는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효과가 큼니다. 따라서 해설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강세진의 사전 허락 없이 본 문제를 복제·변형하여 판매 배포 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4. Kangsejin all rights reserved.

1. 다음 중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이장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② 아버지께서는 주무시는 중입니다.
 ③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고 계신다.
 ④ 그는 할아버지를 뵈는 게 무서웠습니다.

2. 다음 중 ㄱ~ㄴ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 ㄱ.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를 표현한다.
 ㄴ.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를 표현한다.
 ㄷ. 전성 어미를 통해 과거를 표현한다.
 ㄹ. 전성 어미를 통해 미래를 표현한다.

- ① ㄱ: 빗쟁이가 모두 도망갔으니까, 돈은 이제 다 받았군.
 ② ㄴ: 어제 보니까 선생님께서 기분이 좋으시더라.
 ③ ㄷ: 어제 내 팔을 잡은 사람이 범인이었다.
 ④ ㄹ: 아홉 시에 기차가 떠날 예정이다.

3.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능동 표현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 ① 섬과 육지 사이에 다리가 건설되었다.
 ② 교량 공사가 우리 회사에 낙찰되었다.
 ③ 한약방에 다녀온 지가 무척 오래되었다.
 ④ 경매에 올라온 물품이 경쟁사에 매각되었다.

4.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파생적 피동
 ㉡ 통사적 피동
 ㉢ 어휘적 피동

- ① ㉠: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② ㉠: 지방에는 큰비가 와 논밭이 휩쓸렸다.
 ③ ㉡: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진흙탕에 넘어졌다.
 ④ ㉢: 이제는 계절이 봄이 되었다.

5. ㉠~㉣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용언에 사동 접미사가 두 개 붙는 경우가 있다.
 ㉡ 통사적으로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사동사의 형태를 띠지만 의미가 다소 멀어진 경우가 있다.

- ① ㉠: 칭얼거리는 아기를 겨우 재워 놓았다.
 ② ㉡: 선생님은 학생에게 과제를 하게 했다.
 ③ ㉢: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을 안겼다.
 ④ ㉣: 상대 팀에 먼저 한 골을 먹었다.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에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먼저,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게다가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고,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며,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 ① ‘차를 끓이다.’의 접미사 ‘-이-’ 뒤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있다.
 ② ‘시간을 비워 두었다.’의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많이 빈다.’의 ‘빈다’의 어간과 동일하다.
 ③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의 접미사 ‘-리-’는 동사에 결합하여 품사를 바꾸고 사동의 의미를 더하였다.
 ④ ‘나는 모형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의 접미사 ‘-리-’는 형용사의 어근에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더하였다.

※ 해설 들을 때 분석하세요.

- 차를 끓이다.
 ○ 시간을 비워 두었다.
 ○ 시간이 많이 빈다.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나는 모형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7.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그는 나에게 아무런 암시도 ㉠주지 않고 갑자기 떠났다.

- ① 그 사람에게 괜한 관심을 주지 말아라.
 ② 어머니는 동생과 싸웠다고 나에게 편지를 주셨다.
 ③ 나에게 며칠 말미를 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④ 수업 시간에 친구가 계속 떠들자, 선생님께서 그에게 주의를 주셨다.

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精)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할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러 예어 가는고.

- 황진이

(나)

동기(同氣)로 세 몸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석양(夕陽) 문외(門外)에 한숨 겨워하노라.

- 박인로

- ① (가)는 유교적인 덕목을 활용한 교훈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나)는 시적 대상의 슬픈 감정이 자연물에 이입되어 나타나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대비법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나타내었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론의 철학자인 흄은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고 하였다.

그는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이를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전자는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을 말하고, 후자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혀로 설탕의 ‘단맛’을 느끼는 것은 ‘인상’이지만, 머릿속으로 ‘단맛’을 떠올리는 것은 관념이다. 또한 인상은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단일 감각을 통해 얻을 수 있고, 후자는 단순 인상들이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순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을 복합 관념이라고 한다. 단, ‘황금 소금’처럼 인상이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흄은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인과 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일 뿐, 객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때 얻은 과학적 지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흄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를 진리라고 보았지만, 흄은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술에 불과할 뿐, 진리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는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히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이성만 중시했던 당시 철학 사조에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과 진리의 문제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① 오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을 인상이라고 하며, 이 인상이 여러 감각들이 결합할 때 복합 인상이라고 한다.
- ②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진리라고 보지 않았다.
- ③ 흄이 태어나기 전 이성에 반기를 든 학자로 데카르트가 있다.
- ④ 과학적 탐구 방식에서의 인과 관계는 필연적으로 생각된 것이 일반적이었다.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므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매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 놓은 가격과 수량을, 미래의 특정 시점인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인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으로서의 기능을 한 선도는 19세기 중반 이전에 있던 파생상품이다. 그런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인도하는 현물 거래와는 형태가 달랐다. 그래서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위험도 높아 불안정성이 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중반부터는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나타났다.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 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같다. 하지만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거래소의 역할은 우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고,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어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 ① 선도와 선물은 모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손익이 결정되지 않는다.
- ② 선물과 달리 선도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 ③ 선도와 달리 선물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하는 계약이다.
- ④ 파생상품은 미래 가격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특정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